

2022 인천초은초 5-7

영원히 간직될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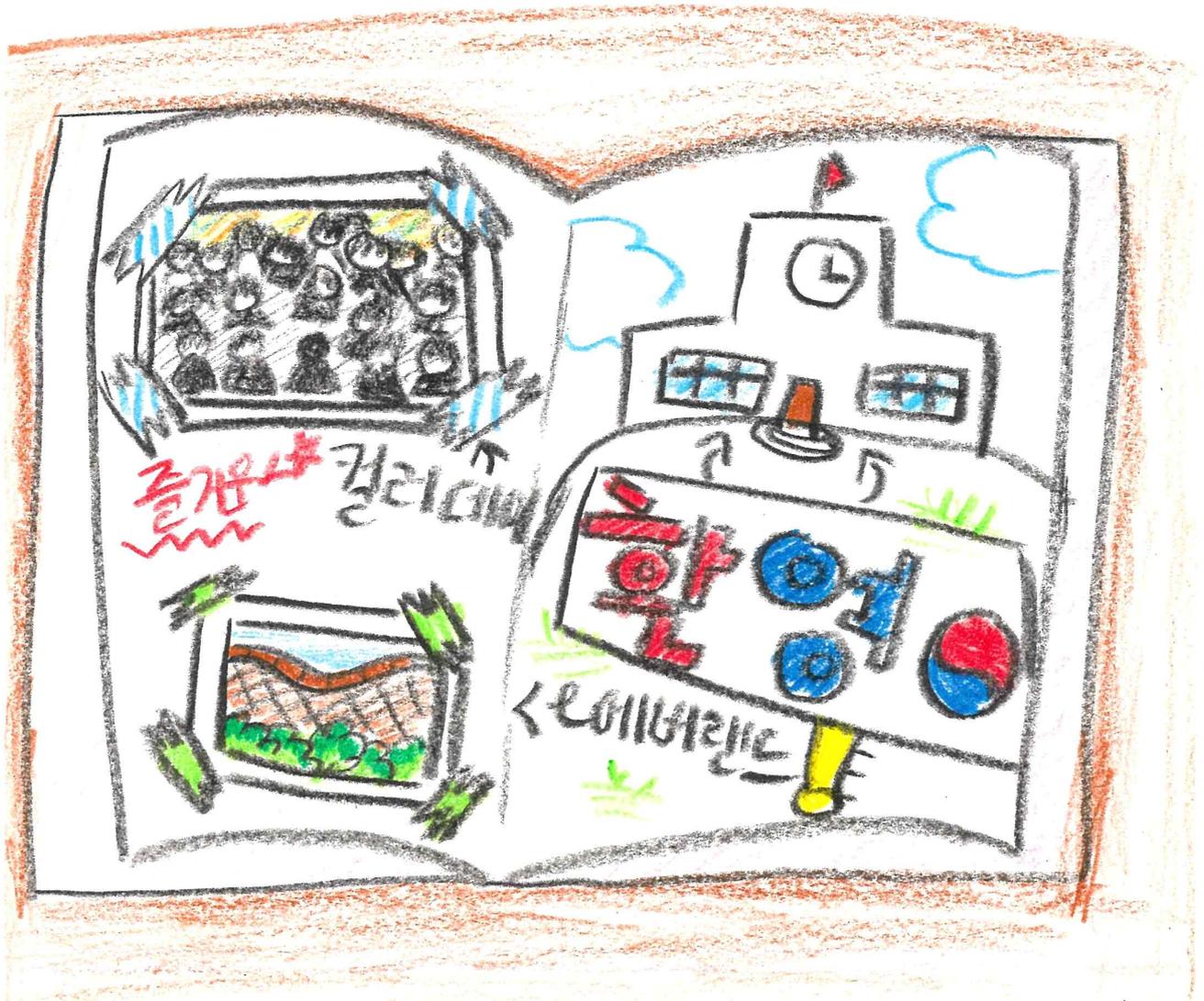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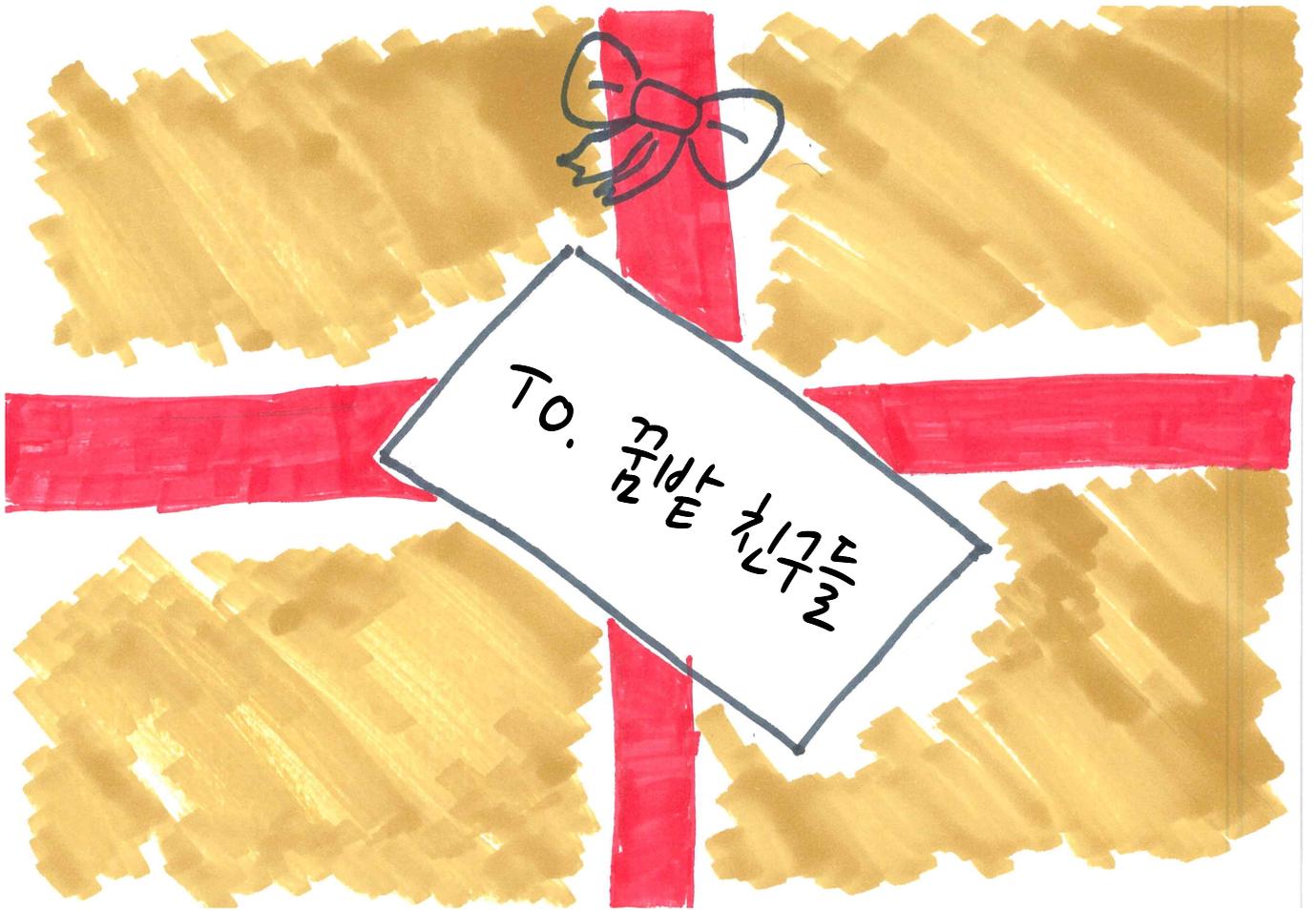
꽃받침~♡
꿈
바
꿈
타

이별신사 100000
유사라 선생님♡



영원히
간직될
이야기





땡동~~~♪

꿈발 친구들 앞으로 선물이 도착했네요.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한 번 선물을 열어볼까요?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두근두근~~~~~

동네책방 탐방

1번 고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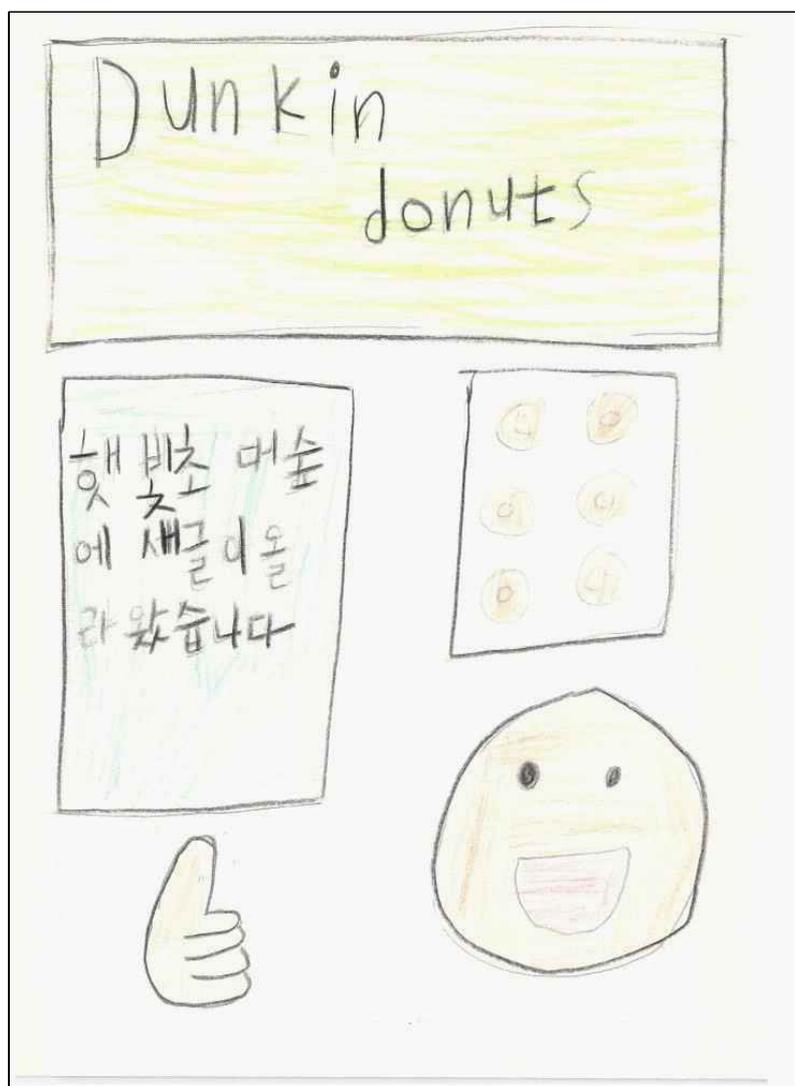
오늘은 미추홀문고 탐방을 가는 날이다.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빨리 학교에 갔다.

우리는 미추홀문고에 가서 책을 읽고, 서점을 둘러보았다. 선생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책을 1권씩 사주셨다. 우리는 선생님께서 사주신 책을 들고 1층에서 사진을 찍었다.

선생님께서 서점 아래 1층 도넛 가게에서 도넛을 사주셨다. 우리

는 학교 1층 야외에서 도넛을 뽀뽀이 흠어져서 먹었다. 코로나 때문에 떨어져 먹어서 아쉬웠다.

나는 선생님께서 사주신 책을 다 읽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싶다. 너무 즐거운 하루였다.



현재진행형

2번 김도현

4학년이 끝나고 5학년 7반에 처음 들어갔다. 자기소개도 하고 아는 친구들과 인사하려니 조금 떨렸다.

"오늘은 타임캡슐을 만들거예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타임캡슐?'

처음엔 좀 의아해했다. 안에 넣을 물건을 생각하니 두근거렸다. 그 두근거림은 다음날까지 이어져갔다.

다음날 나는 여러 가지를 준비해갔다. 반구 모양의 타임캡슐, 크지만 한편으론 작은, 딱차지만 적은 거 같은 이 캡슐 속에 시간을 담

는다고 생각하니 다시 두근거렸다. 언제쯤 열지, 언제쯤 1년이 지날지 너무너무 궁금했다. 어떤 친구는 펭귄 모양 인형, 어떤 친구는 포토카드. 여기에 우리의 첫만남의 정적, 공기, 시간이 담겨있겠지.

지금은 우리가 가늠치도 못한 1년이 지나 엔딩이라는 글자에 다가가고 있다. 엔딩에 도달해 무대의 막이 내리면 타임캡슐을 열어보며 아스라이 3월의 설렘을 느끼겠지. 우리는 엔딩으로 다가가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학예회

3번 김민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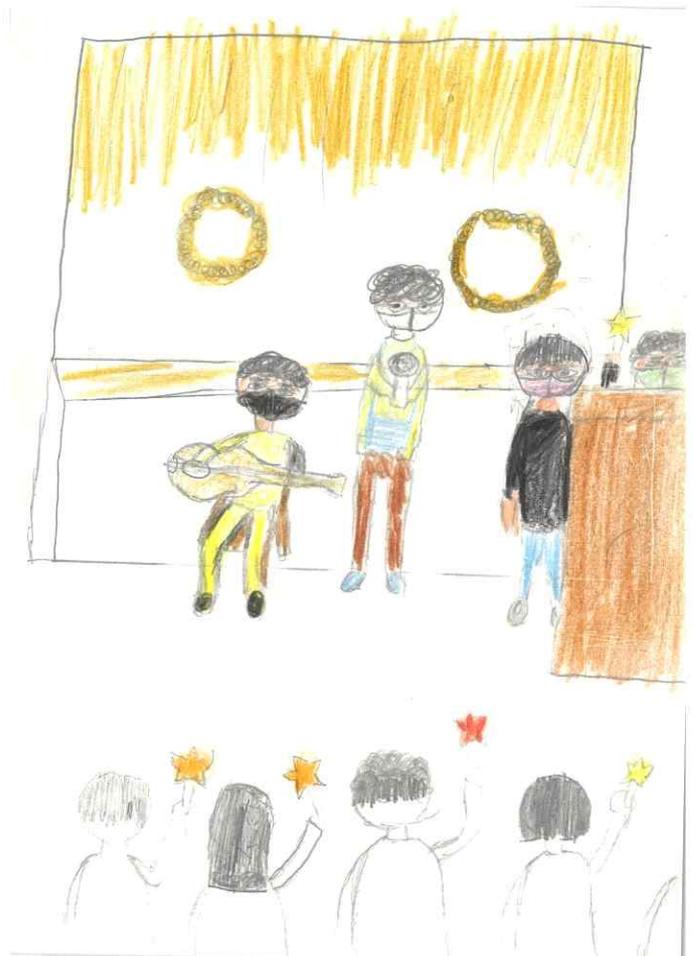
2022년, 우리반에서 학예회가 열렸다.

우리반 친구들은 모두 2개월 전부터 열심히 학예회 준비를 했다. 우리는 단체순서로 춤을 추기로 하고 나는 개인순서로 친구와 함께 나는 기타를 치고 친구는 노래를 불렀다.

10월 6일, 기다리던 학예회가 시작되었다. 다른 친구들의 순서가 지나가고 내 순서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첫 번째 단체순서의 차례가 왔다. 많은 팀중에서 첫 번째여서 긴장을 많이 했지만 하고 나니 더 자신감이 생겼다. 다른 친구들의 순서가 다시 지나고 나의 개인순서가 왔다. 많이 연습한 만큼 실수가 없었고 반응이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인 두 번째 단체순서가 끝나고 우리는 사진을 찍으며 학예회를 마무리했다. 우리 반 친구들과 정말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분리 수거

4번 김유건

2학기 때 일인일역 분리수거 담당자가 되었다. 분리수거 담당자가 된 나는 충격적인 소리를 들어 버렸다. 그 말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분리수거 담당자는 점심시간에 후식 용기 쓰레기를 세척하고 다른 사람은 자기꺼는 자기가 세척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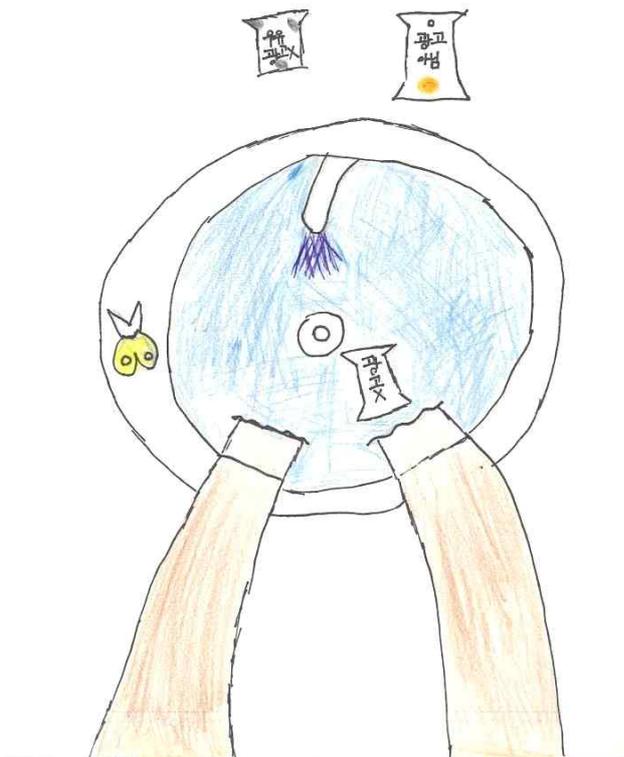
나는 점심시간이 끝나고 우유팩을 찢는 법을 선생님께 배웠다. 그때 4명이 있었는데, 재민, 나, 김서현, 도현이가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처음으로 멸균팩을 해봤는데, 가위로 자르는 게 생각보다 쉬웠다. 그다음 레몬에이드 용기, 우유팩, 멸균팩을 많이 했었다.

많이 한 나는 선생님께
"선생님, 저 안해도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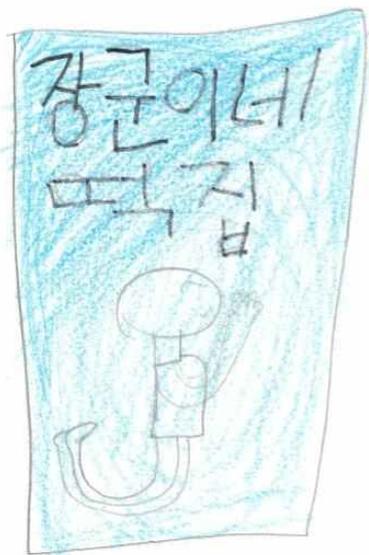
라며 농담도 많이 했었다.

4개월 정도 한 나는 고수가 된 기분이 아닌 기분이었다. 분리 배출이 끝나는 날이 다가온다면 좋은 기분도 아쉬운 기분도 들 것 같다.



동네책방 탐방

5번 백승한



미추홀문고 서점에 갔다. 친구들이 원하는 책을 사주기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서점에 갔는데 책들이 엄청 많았다.

하지만 나와 승아는 책을 못 골라서 거기서 도서부장 (곽나윤, 최해솔)이랑 책을 골랐는데, 나는 '장군이네 떡집'인데 승아는 뭘 골랐는지 기억이 안난다.

어쨌든 책을 산 후 선생님께서 도넛을 사주셨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 쪽에 급식실 옆에서 도넛을 먹고 교실에서 책을 읽어봤다. 좋은 추억이었다.

컬러데이

6번 손권우

처음으로 5학년 7반에 갔을 땐 너무 기대되고 설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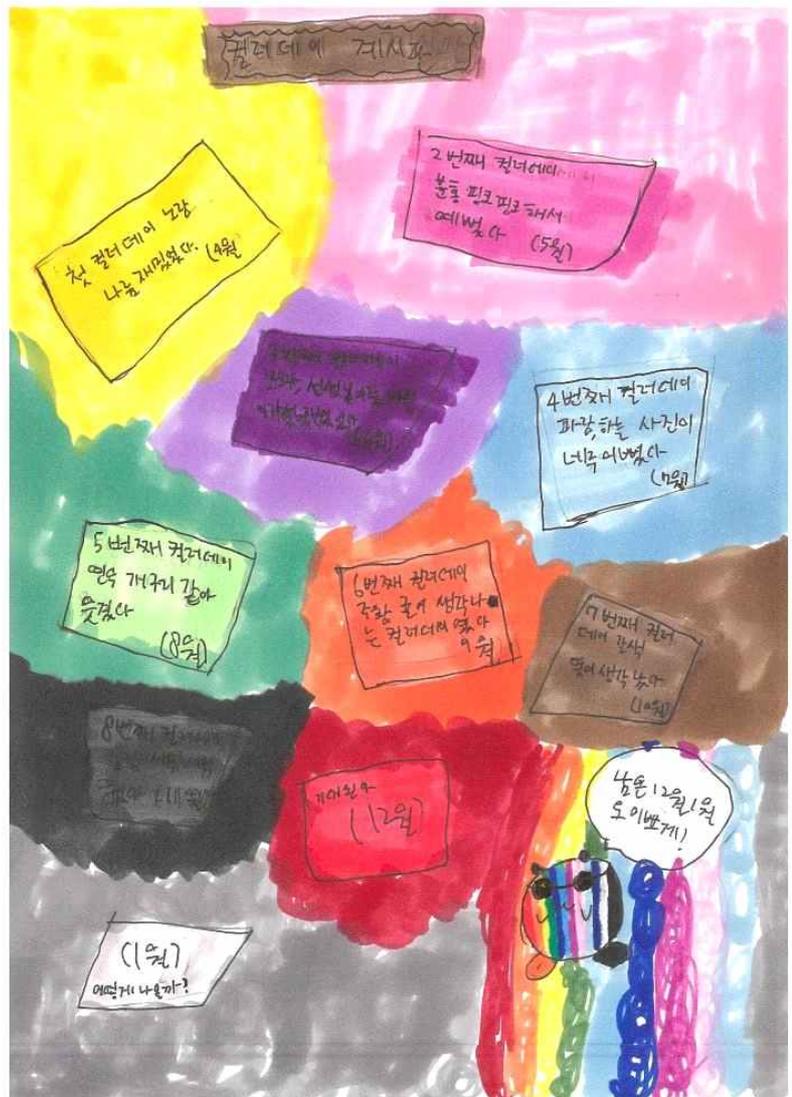
"이번엔 어떤 애들을 만날까?"

너무 기대됐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애들아, 컬러데이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 아무튼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선생님 반이었던 형, 누나들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다. 솔직히 난 좀 귀찮았다. 그래도 컬러데이를 했다. 생각 외로 재밌어서 좋았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친해지고 학기가 끝나가고 있었다.

벌써 빨강 초록밖에 안 남아서 너무 아쉽고 재밌었다. 컬러데이를 만들어주신 선생님께 감사해야겠다.



다양한 색의 컬러데이

7번 송시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컬러데이라는 행사를 할 거야. 컬러 데이는 달마다 같은 색의 옷이나 소품을 가져와 사진을 찍는 거야."

처음 컬러데이를 한다고 했을 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행사라 정말 기대가 되었다. 3월부터 11월까지 많은 컬러데이를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즐거웠다.

처음 컬러데이의 색은 노란색이었다. 노란색의 옷이나 소품이 없어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것 같아 살짝 아쉬웠다. 두 번째는 핑크였다. 핑크색 옷이 마침 딱 있었고, 친구들도 잘 맞추어 입고 와서 핑크데이라는 느낌이 딱 났다. 급식실에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우리 반 아이들만 핑크색을 모두 입고 있어서 5학년 7반 친구들이 함께 라는 생각이 들었다. 6월은 보라색이었는데 난 책의 한 부분을 가져가서 만족했다. 7월은 여름이라 시원한 파랑이었다. 보고만 있어도 시원한 느낌이 들었다. 8월은 초록이어서 한눈에 봐도 숲에 들어온 느낌이었다. 9월은 주황이었는데 제주도를 많이 갔다 왔는지 감귤 모자가 많이 보였다. 10월은 가을이라 갈색, 11월은 블랙으로 친구들이 올블랙으로 입고 와서 정말 재미있고 놀랐다.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색은 파랑과 블랙이다. 왜냐하면 파랑은 친구들 모두 파란색으로 잘 입고 왔고, 시원한 느낌이 들어 여름과 잘 어울렸다. 그리고 사진 아래에 있는 병풍 그림책과 정말 잘

어울렸다. 블랙은 모두 다 올블랙으로 입고 온 친구들이 많았다. 컬러데이를 깜빡하고 검은색 옷을 입지 않은 친구도 있었는데 한 친구가 "어! 야, 나 검은 패딩 있는데 안에도 검은색 옷 입었으니까 너한테 빌려줄까?"

"진짜? 그러면 정말 고마워!"

그래서 모두 블랙을 입을 수 있어 잘 어우러져 좋았다.

선생님의 제안으로 컬러데이를 할 수 있어서 5학년의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 또, 나중에 사진으로 보았을 때 5학년 때의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좋다.

마지막 컬러데이는 흰색이다. 흰색 컬러데이도 정말 기대된다. 잊지 말고 흰색 옷을 잘 입고 가야겠다. 의미있는 추억을 만들어준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어 행복한 5학년이었다.



발야구 대결

8번 이강민

어느 날 체육시간이었다. 원래는 그냥 강당에서 다른 운동을 하는 날이었는데, 4반과 체육 시간이 겹쳐서 4반이 발야구 대결을 요청했다. 우리 담임선생님께서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요청을 받아주셨다. 담임선생님께서서는 그 이후에 일어날 일도 알고 계셨을까?

우리 반은 강당에 도착했다. 팀을 2팀으로 나누고 4반 선생님께 간단한 설명을 듣고 발야구 대결이 시작되었다. 나는 2팀이어서 1회를 지켜보았다. 우리 반 친구들이 공을 차는 친구에게

"때려!"

라고 하였다. 그러더니 '뽕' 하고 공이 날아갔다. 아쉽게도 뜬공으로 바로 잡혔다. 그런데 1루에 있었던 친구가 2루로 가서 친구들이 다시 1루로 돌아오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친구는 가우똥한 표정을 지으며, 1루로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우리의 공격이 끝났다. 경기의 룰을 친구가 잘 몰랐기 때문이었다.

4반이 7점을 내어서 1회가 끝난 후 점수는 7(4반):3(우리 반) 이었다. 그리고 나서 2회 초에 내가 속한 2팀이 3점을 내었지만 아직 7(4반):6(우리 반) 이었다. 원래 2회로 끝나는 4반이 이긴 경기였지만, 2회 말까지 4반 공격이 진행되었다. 2회 말에 내가 11 아웃 중 8 아웃을 잡았다. 그래서 나는 우리 반의 영웅이 되었고, 2회 말에 고작 1점밖에 주지 않았다. 8(4반):6(우리 반)으로 져서 아쉬웠지만, 우리 반의 영웅이 될 수 있어서 기분이 조금은 좋았다.



과학 영화

9번 이종서

비가 올듯 말듯 흐린 날이었다.
오늘은 과학선생님께서 영화를
본다고 하셨다.

"과학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말했다.

"오늘은 영화 볼거예요."

"와!!"

우리는 외쳤다.

"무슨 영화예요?"

"'투모로우'라는 재난 영화예요."

라고 하셨다.

영화가 시작하고 첫 장면을 봤

는데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안 갔다. 보다 보니 내용이 지구의 환
경이 나빠져서 추워진 것이다. 또 긴장되고, 무서운 부분이 있어서
재미있었다. 계속 보다가 점점 졸리고 허리가 아파졌다. 재난이 끝
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불을 켜고 학습지를 썼다.

다 쓰고 난 뒤, 선생님께서 가시니 너무 아쉬웠다. 너무 재미있고,
슬프기도 한 영화였다. 그리고 계속 환경이 나빠져서 재난이 오니
까 '환경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체육대회

10번 임주원

오늘은 체육대회 날 이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기대를 안고 학교에 갔다. 학교에 도착한 후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운동장으로 나갔다. 나간 후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체육대회를 시작했다.

첫 번째 게임은 대나무 갈라놓은 것 같은 걸로 공 옮기기를 했다. 공 옮기기는 상자 안으로 공을 대나무를 연결시켜 옮기는 게임이다.

"아자! 아자! 파이팅!"

처럼 기합을 넣으며 했다. 첫 게임 이어서 친구들이 의욕이 넘쳤다. 아쉽게도 두 팀이 비겨서 승패를 겨룰 수 없었다.

두 번째 게임은 피구였다. 피구는 알다시피 맞으면 외야로 가고 내야에 사람이 없으면 지는 게임이다. 다들 재미있어했고 다들 좋아했다. 하지만 우리 팀이 져서 아쉬웠다.

세 번째 게임은 강당으로 가서 공굴리기를 했다. 공굴리기는 주사위로 나온 지점까지 공을 굴리는 게임이다. 자신이 있었지만 주사위를 굴리고 하는 것이어서 운이 없는 나에게는 힘든 게임이었다. 그리고 역시나 졌다. 계속 6만 나와 너무 뒤쳐져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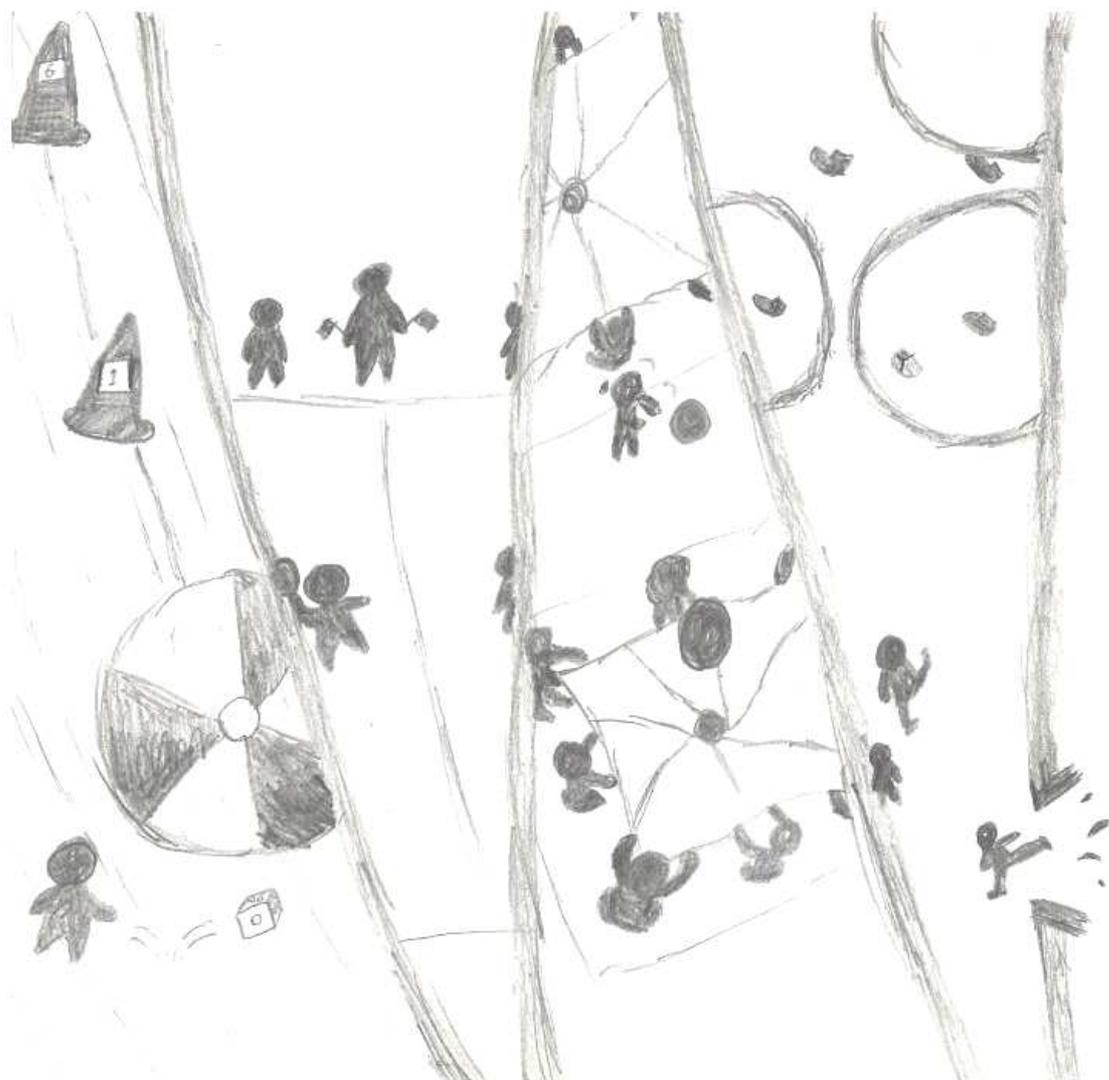
네 번째 게임은 원판 뒤집기를 했다. 원판 뒤집기는 빨간팀과 파란팀으로 나눠 자신의 팀의 색으로 뒤집으면 되는 게임이다. 나는 게임 할 때 상대 뒤를 따라다니며 상대방이 뒤집는 걸 다시 뒤집는

전략을 썼다. 한 개 차이로 이겼다. 다시 운동장으로 갔다.

다섯 번째 게임은 공 튕기기를 했다. 공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오래 튕기는 게임이다. 공을 튕기고 있는데 나에게 실수했다고 여학생이 욕을 했다. 욕을 우리반에서 처음으로 했다. 나는 놀라서 울었고 사과를 했지만 잘 들리지 않았다.

여섯 번째 게임은 신발 던지기를 했다. 우느라 게임을 못해 잘 알지 못하고 우울한 분위기였다.

나는 밥을 먹지 않고 그냥 집에 갔다. 우울하게 집에 갔다. 다음 학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에버랜드

11번 장성민

어느 날 이른 아침 집에서 준비를 마치고 학교 운동장으로 갔다.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고 버스를 타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다. 수다를 떨다보니 에버랜드에 도착하였다.



에버랜드 입장권을 사고 썬더폴스가 있는 데로 갔다. 썬더폴스에 도착해 대기줄이 별로 없어서 바로 줄을 섰다. 20분쯤 기다린 뒤 우리 차례였다. 너무 떨렸고 탑승하니 조금 무서웠지만 재밌었다. 타고 나온 뒤 모두 머리가 젖어있었다.

걷던 중 친구들을 발견해 달려갔다. 가까이 가서 보니 모르는 사람이었다. 너무 민망해서 빨리 뛰어갔다. 배가 고파서 가든테라스라는 식당에 갔다. 밀쿠폰을 사용해 피자를 먹었다. 맛있게 먹은 뒤 피터팬, 스카이댄싱, 매직스윙 등 재밌는 놀이기구를 탔다. 놀이기구가 대기줄이 많을 거 같아 마음이 조금했지만 별로 없어서 다행이었다.

신나게 논 뒤 간식을 먹고 기념품샵에 가서 기념품을 샀다. 갈 시간이 되어 버스를 타고 학교에 도착해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가서 조금 아쉬웠다.

타임캡슐

12번 최재민

4학년이 끝나고 5학년 7반이 되었다. 자기소개도 하고 아는 친구들과 인사도 하니 나도 이제 어른이 된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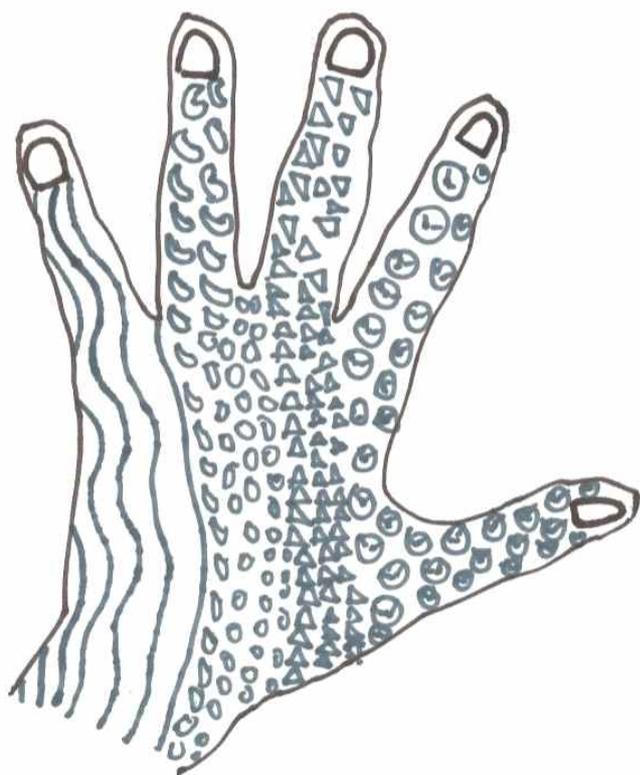
모두 자기소개를 마치니 선생님께서 타임캡슐을 만들자고 하셨다.

"1년 후 6학년이 될 나에게 편지도 써보고 타임캡슐 안에 들어갈 물건도 찾아보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집에 들어가 물건을 찾아봤다. 물건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넣지 않았다. 학교에 와서 타임캡슐도 만들고 편지도 쓰니 6학년이 된 내가 이 편지를 읽으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해졌다.

5학년이 다 끝나가는 지금은 편지 내용을 보고 싶긴 하지만 5학년이 끝나면 아쉬울 것 같다. 6학년이 된 나는 어떻게 지낼까? 너무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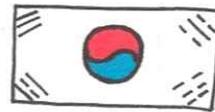
머그컵 만들기

13번 경라현

아침이 되었다. 오늘은 학교에서 머그컵을 만드는 날이었다. 벌떡 일어나서, 준비하고 학교로 출발했다. 머그컵을 만들어서 설렘다. 왜냐면 나의 개인 머그컵을 만드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했다. 학교로 가면 알 수 있었다.

학교에 도착해서, 매일수학을 했다. 9시가 되었다. 머그컵 만드는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인사를 했다. 선생님께서 머그컵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해주셨다. 듣고 나서 이해가 됐다. 선생님께서 머그컵을 만드는 기구를 가져오셨다. 기구가 신기했다.

드디어 우리의 머그컵 디자인을 골랐다. 나는 어린 왕자를 골랐다. 색칠 도구를 꺼내 색칠하기 시작했다. 내 생각에는 색칠이 예쁘게 됐다. 머그컵 색깔이 다양했다. 나는 늦게 해서 초록색 컵을 골랐다. 책상에 앉아있으면서 기다리다가 선생님께서 내 것을 잡으셨다. 선생님께서 종이를 컵에 붙이셨다. 연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완성됐다. 생각보다 예쁘게 나와서 기뻐다.



너와 나의 공감대

14번 곽나운

어느 날 교실에서 생존수영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너무너무 신나서 환호성을 질렀다. 반면 걱정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나도 약간의 걱정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해서 서운이와 톡을 하면서 준비물을 챙겼다. 그날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해야 해서 일찍 일어났는데 하나도 졸리지 않았다. 가방을 싸고 일찍 학교로 출발했다.

생존수영을 가기 위해선 셔틀을 타야했다. 여자아이들은 안에서 사진을 찍었다.

"으악!"

갑자기 아주 큰 벌레가 내 앞에 나타나서 깜짝 놀랐다. 어지저찌 잘 해결한 뒤 수영장에 도착했다.

처음이라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수영선생님께서 빨리빨리 하라고 말씀하셔서 우물쭈물하던 아이들이 모두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다. 들어가 보니 사람들이 진짜 많았다. 처음에 입수 방법을 배웠는데 수영을 배웠어서 그런지 나에게서는 어렵지 않았다. 또 구멍조끼도 입에 보았다. 아참! 수영장의 물이 바닷물이라서 짠다. 짠 수영장은 처음이라 신기했다. 자유시간에는 서운이와 함께 재미있게 놀았다. 비록 난 안경을 벗었어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집으로 가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그런가 보이는 식당마다 들어가서 뭐라도 먹고 싶었다. 수영하고 씻을 때 샴푸도 하지 않는

다고 해서 찝찝할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다행이었다.

이튿날에는 익숙하게 준비도 하고 도착했다. 심폐소생술과 입수 방법, 대처 방법을 배웠다. 마찬가지로 셔틀을 타러 갈 때 배가 너무 고팠다. 셔틀에서 내렸더니 비가 오고 있었다. 모두 놀라서 손을 우산으로 생각하고 머리를 가리며 뛰었다. 힘들기도 배고프기도 했지만 생존수영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감정은 기쁨이었다. 이틀이라 아쉬웠지만 나름대로 의미있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에버랜드에서 생긴 일

15번 김리원

핸드폰에 진동이 울렸다.

"나 도착!"

토리가 문자를 보냈다. 토리와 곰이가 벌써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나도 힘차게 달려서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하지만 니콘이가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도 괜찮았다. 왜냐하면 오늘은 기다리고 기대하던 에버랜드 가는 날이니까!

학교에 도착했다. 우리가 3등으로 먼저 온 모듬이었다. 우리가 일찍 간 까닭은 먼저 학교에 모인 모듬 차례대로 버스에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모듬이 모였다.

버스에 탔다.

"드디어 오늘 에버랜드에 가는구나!"

내가 기대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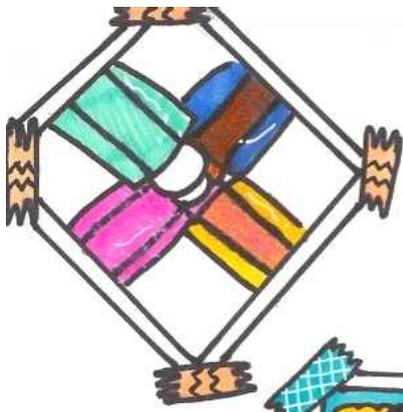
유니콘이 말했다. 1시간 30분 후, 에버랜드에 도착했다.

니콘이와 나에게는 해야할 일이 있었다. 니콘이는 놀이기구를 예약했고, 나는 정시에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냈다.

우리 반은 이제 입장했다. 내 마음은 하늘로 날아갈 것만 같았다. 콜롬버스 대탐험을 탔다.

'생...생각보다 높구나..?'

심장이 뛰었다. 내리고 나서 바로 썬더폴스로 뛰어갔다. 다행히 우비 덕분에 많이 젖지 않았다. 유령의 집을 갔다 오고, 스카이 댄



싱을 타고 나서 모자를 사러갔다. 쓰고 다니는데 좀 더웠다. 또 중간중간에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냈다.

오후 1시가 넘어서 밥을 먹으러 차이나 문에서 오징어 짬뽕을 먹었다. 곰이도 짬뽕을 먹었는데 곰이가 정말 매워해서 웃겼다.

마지막으로 레이싱 코스터를 타고 나왔다. 선생님께서 오후 2시 50분까지 모이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알고보니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이라고 하셨던 장소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무려 30분을 늦어 버렸다. 친구들이 우리 모듬을 찾으러 왔고,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부끄러웠다.

'으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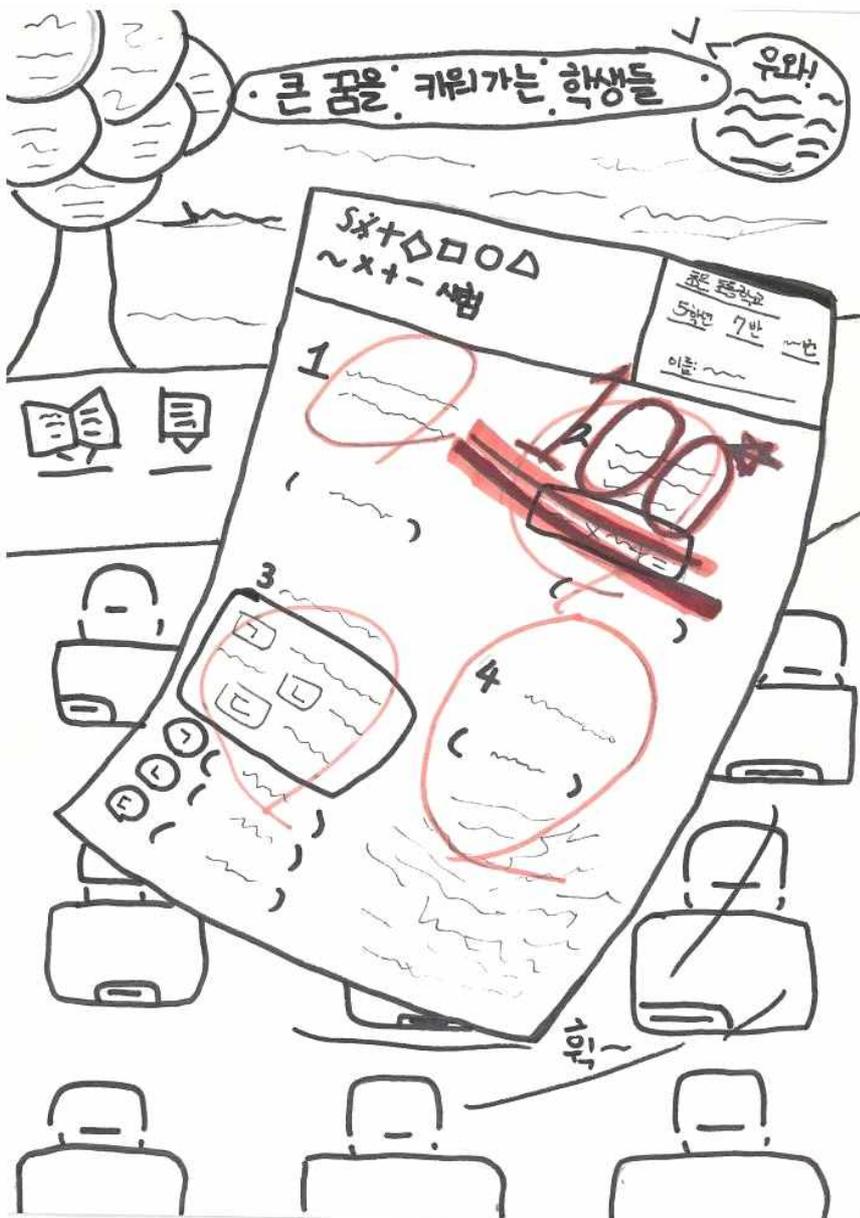
점점 쪼그라드는 기분이었다. 결국 우리 모듬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서 다시 돌아갔다. 그날 내 발은 불이 나는 것 같았다. 힘들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신나고 행복한 하루였다.

긴장의 수학 시험

16번 김서현

잠들기 직전! 내일이 수학 단원평가라는 걸 알았을 때 식은 땀이
비질비질 났다. 심장이 쿵! 쿵! 그 상태로 침대에서 일어나 수학
교과서를 살핀 후 조금 안도하며 잠을 잔 후! 다음 날 아침 일어
나서 밥을 먹고 가방을 메고 집을 나왔다.

1교시가 시험이라
당황했지만 포커 페
이스로 잘 버텼다
싶을 찰나에 시험지
가 탁! 하고 내 책
상에 올라와 있는
데 어제 저녁에 느
낀 감정이 다시 느
껴지는 것이다. 눈
밑으로는 모르는
문제가 나오고 헛
갈리는 문제도 나
오고. 휴.. 참 힘들
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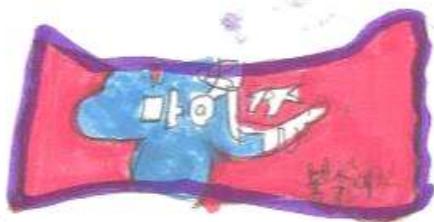


꿈밭마켓

17번 박승아

우리 반에서는 숙제를 다 하거나 좋은 일을 하면 쿠키를 받는다. 쿠키를 모으면 꿈밭마켓이 열리고, 선생님께서 과자, 젤리도 주신다. 쿠키로 바꾼 과자와 젤리를 먹으니 기분이 좋았다.

이제 꿈밭마켓이 한 번 밖에 안 남았다. 그때까지 쿠키를 열심히 모아서 과자랑 젤리를 많이 사 먹고 싶다. 매일수학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께서 내주시는 미션도 열심히 참여해야지!



친구들이랑 에버랜드 간 날!!

18번 손채은

우리 반은 7반이라서 다른 반들이 갈 동안 기다리고 화장실 가고 버스에 탔다. 버스는 엄청 높았다.(신기방기^—^) 멀미가 심한 편이라서 너무 걱정하고 친구들도 걱정했는데 다행히 멀미가 나지 않았다.

에버랜드에 사람이 엄청 많이 와서 기다리다가 들어갔다. 나도 모르게 3~4개를 탔다. 점심은 (으음) 내 입맛에는 별로였다. 망고주스도 먹고 강민이네를 봤는데 다 젖어있어서 왜냐 했더니 물을 맞았다고 했다. 하하하.

이제 집에 가려고 모이는데 서윤이네 조가 길을 잃어버려서 2시 30분에 모여야 되는데 3시쯤에 완전체로 모였다. 에버랜드가 너무 복잡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버스에서 자고 일어나서 장난을 좀 치다가 학교에 도착하고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5시쯤 집으로 갔다.

정말 힘들었지만 정말 재밌었다. 친구들과하고 가서 더 재밌었다. 다음에 가도 신나게 놀 수 있다! 끝.♡♡



18 손채은

학예회

19번 양하은

오늘은 학예회를 하는 날이다. 학예회 전날 자려고 저녁에 침대에 누웠는데 넘 설레었는지 잠이 안 왔다. 하지만 지금 늦게 자면 학예회 당일엔 피곤하여 학예회를 망칠 수도 있어서 빨리 자야했다. 그렇게 힘들게 몸부림을 치고 나서 그제서야 잠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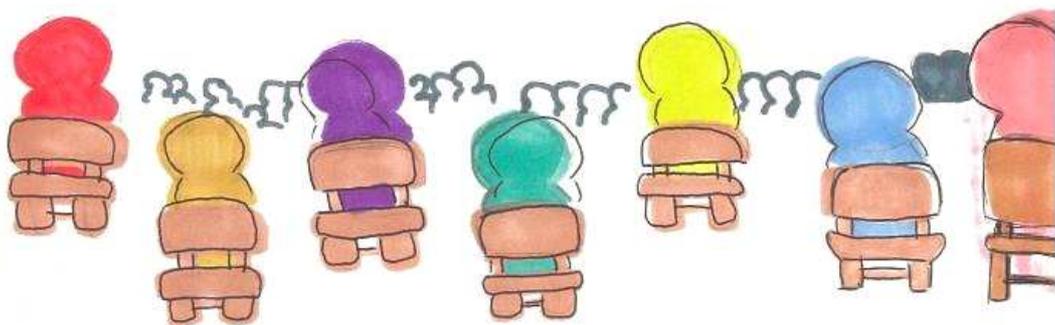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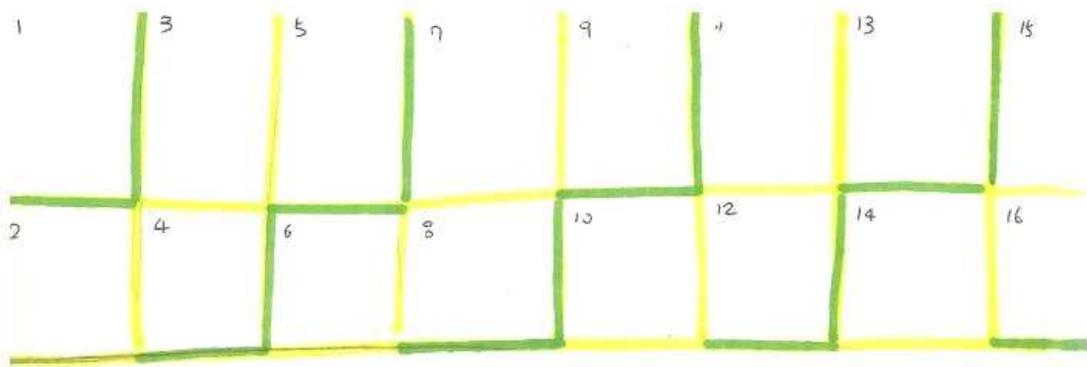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려 빠르게 일어나서 준비를 했다. 준비를 다 하고 준비물도 다 챙긴 후 동생과 학교를 갔다. 학교를 가니 반 친구들이 설렌 것 같았다. 학예회 시작하기 전에 리허설을 했다. 리허설을 다하고 부모님들을 기다렸다.

부모님들께서 다 오시고 학예회를 시작했다. 다른 친구들의 개인 발표가 끝나고 '라떼는 말이야' 시간이 왔다. 내가 첫 순서여서 많이 긴장했지만 그래도 나름 잘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다른 친구들도 다 발표를 하고 나니 어느새 '라떼는 말이야1'이 다 끝나고 또 개인 발표 시간이 왔다. 한 명 한 명씩 발표를 할 때마다 나의 차례가 다가와 너무 긴장이 됐다. 던던댄스 팀이 오래전부터 연습해왔던 거였기에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더 떨리긴 했지만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오고 던던댄스 노래는 시작되었다. 춤을 추다가 틀린 동작이 있어 재빨리 바꿨지만 너무 아쉬웠다. 연습할 땐 잘했었는데 실수해서 속상하기도 했고 아쉬웠다.

아쉽게 내 차례가 끝나고 다른 친구들이 또 개인 발표하고, 또

'라떼는 말이야2'가 시작되고 난 링딩동을 찾다. 링딩동을 연습할 때 노래가 자꾸만 머리에 맴돌아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리 지금 들어봐도 똑같다. 연습할 땐 어지러웠지만 실제로 할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했다. 그렇게 링딩동도 다 끝나고 다른 친구들도 발표를 하고 나니 어느새 학예회가 끝나가 너무 아쉬웠다. 아빠와 얘기 조금 나누고 친구들과 사진도 찍고, 아쉬웠지만 너무 행복한 학예회였다.



문화예술축제

20번 장소영

학교 가기 전날 밤 너무 설레어서 잠이 안 왔다. 그래서 너무 설레서 그냥 거기서

"아아, 너무 설렌다."

이러고 있다가 자버렸다. 그래서 아침이 되어 알람이 울렸다.

"띠리릴리리리리리리링"

항상 싫었던 알람 소리가 들려왔다. 참 좋은 알람 소리였던 것 같다. 그래서 웃으며 꿀호떡을 먹고 갔다. 채은이를 만나고 하하호호 웃으며 즐겁게 학교에 도착한 뒤 반 친구들한테 웃으며

"안녕, 애들아~"

라고 한 뒤 실내화를 덧신으로 갈아신었다. 시간표에 눈이 가서 봤더니 '자율' 등 재밌고 꿈만 같은 시간표들이 가득했다. 시간표밖에 안봤는데 벌써 행복해서 실실 웃으며 문화예술축제 시간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1층으로 가서 연극장이었나 그런 곳을 들어가서

'우와, 무슨 영화 보나..?'

했는데 잘생기신 선생님 한 분이 계셨다. 근데 거기 동그란 원 모양으로 처음 본 악기들이 엄청 많아서 너무 해보고 싶었다. 내 자리에 앉았는데 흔들흔들 치며 칭칭 소리가 나는 악기였다. 선생님께서 악기를 마음껏 쳐보라고 하셔서 어떻게 치는지는 몰랐지만 마음껏 쳐봤다. 그래서 행복했다. 선생님께서 이제 돌아가며 악기를 서로 바꿔보라 하셔서 내가 해보고 싶었던 악기들도 많이 쳐보았다. 선생님께서 연주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하시길래

'헉, 재밌겠다.'

라고 생각하며 누가 먼저 연주 첫 부분을 시작할까 생각했는데 선생님께서 나부터 하라고 하셨다. 너무 놀라서 일단 그때는 북이었어



서 '쿵쿵'하고 쳐보았는데 손이 너무 아팠다. 일단 첫 부분을 내가 시작했다. 그 뒤로 하은이가 감미롭고 멋있게 내가 쳤던 연주를 뒤 이어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어주었다. 채은이도 그 연주에 따라 재밌고 멋지게 연주를 쳐줬고, 그 뒤로 친구들도 한 명씩 멋있게 만들어 주었다. 혼자 치면 노래가 재미없는데 다 같이 치니까 너무 멋있었다. 재밌었던 시간이 끝났다. 너무 아쉬웠지만 재밌었다!

그리고 항상 강당에서만 보던 샌드아트를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샌드아트를 한다고 하길래 너무나도 재밌을 것 같았고, 신나는 마음으로 했다. 권우랑 채은이랑 하은이랑 같이 앉았다. 하은이랑 한 모래에서 같이 했는데 너무 재밌었다. 꿈을 그려보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어린이집 선생님을 그렸다. 하은이도 채은이도 어린이집 선생님을 그렸다. 선생님께서 칭찬도 해주셨다. 기분이 좋았다. 예술 작품 중 고흐가 그린 그림들도 많이 보았다. 재밌었다. 친구들과 하니 더 재밌는 날이었다.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착하시고 멋있으셨다.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다.

비가 와서 더 아름다운 추억-심곡천 탐방

21번 조서운

"얘들아, 우리가 며칠 뒤에 심곡천 탐방을 하게 되었어요~"

"와아~"

친구들이 함성을 질렀다.

심곡천 탐방 전날 오후, 나와 나운이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나서 마트에 갔다. 우리는 한참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결국 나는 감자 과자와 과일 카라멜, 나운이는 감자 과자를 구매했다.

심곡천 탐방 당일, 나운이와 만나 학교에 갔다. 하지만 비가 내려 우리는 걱정을 했다. 걱정하는 마음을 가득 안고서 학교로 향했다. 역시.. 학교에 도착을 했는데도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렇게 1교시가 흐르고 2교시가 되어갈 때쯤 더욱 비가 거세지는 것 같았다. 여기저기서

"선생님! 그냥 지금 나가면 안돼요?"

"점점 비가 거세지는 것 같아요!"

얼른 나가자는 목소리들이 하나 둘 들려왔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그 의견들에 찬성하셨는지

"그래! 나가자!"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도 가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바로.. 하루동안 같이 다닐 짝을 뽑을 거예요!"

라고 하셨다. 선생님께서 짝을 뽑을 뽑기판을 TV 화면에 띄우셨고 첫 번째 짝공이 뽑히고 두 번째 짝공이 뽑힐 때 나운이 이름이 나와서

'제바아알~!'

하면서 내가 나오길 빌고 또 빌었다. 결과는..? 내 이름이 나왔다! 나는 나운이와 끌어안고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마지막 짝공까지 뽑히자 우리는 나갈 준비를 하였다. 그때 선생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설명

해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시들지 않는 연꽃이 있어요. 잘 찾아봐요."

"네~~!!"

우리는 가방에 가져온 우산까지 준비했다. 1층으로 내려가 실내화를 갈아신고 이동했다. 학교 옆문으로 나가다 보면 옆에 운동기구가 있는 쪽이 있다. 우리는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걸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돌계단을 내려가 심곡천 옆길을 따라 걸었다.

"비가 오는 중이라서 미끄러우니 조심해요."

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걷다 보니 나무 계단이 나왔다. 나윤이와 같은 우산을 쓰고 걸으니 더욱 좋았다. 계단을 올라가고 한참을 걷고 또 걸으니 엄청난 연꽃이 보였다. 거의 다 도착하니 친구들이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나도 신나하며 흥얼거렸다.

드디어 도착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시들지 않는 연꽃은 바로 철사 연꽃 구조물이었다. 우리는 돌계단에 앉아 과자를 먹었다. 이곳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먹는 과자는 평소에 먹는 과자보다 더더욱 맛있었다! 우리는 무대같이 생긴 곳에서 우산을 쓰고 놀기도 했다.

다시 곧 학교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너무 아쉬웠지만 다음에 더 좋은 추억이 쌓이리라 믿으며 돌아갔다. 돌아가는 길에 친구와 우산을

아래로 내려 몰래 과일 카라멜을 먹었다. 역시 맛있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그 때는 비가 안오면 좋겠다. 다음엔 오늘 못 쌓은 추억을 쌓기 위해서 말이다!



신비로운 축제의 시작

22번 조윤하

그 신비로운 축제는 바로 과학축제이다,

"내일은 과학축제 날이에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과학축제라는 이름부터 설레고 두근거렸다. 학교생활 중 첫 축제였으니까, 그것도 제일 좋아하는 과목으로 축제를 하니 설렘을 감추기가 더 어려웠다. 처음엔 호기심과 궁금한 게 절반을 넘어갔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는 설명을 듣다 보니 무엇인지 이해가 갔다. 대충 들어도 재미있는 축제 내용이었다. 들으면 들을수록 내일이 기대되었다.

다음 날이 되고 설렘을 가득 안은 발걸음이 학교 가는 골목을 가득 채웠다. 교실로 들어가자 친구들도 들떴는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곧 나도 친구들과 이야기했다. 그리고 곧 선생님께서 오셨다.

바로 첫 번째 체험실로 이동했다. 그곳에선 스캔하면 공룡들이 입체로 움직이는 AR 체험과 VR 체험을 했다. 정말 생생해서 놀랐다. 그 순간 나는 '역시 과학'이라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3D 안경 만들기와 드론이었다. 3D 안경을 만들 때 색 조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3D 펜이 굳으니 정말 예쁜 안경이 나왔다. 그리고 드론을 날릴 때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날아가서 놀라고, 조금 무서웠다.

'왜 저렇게 높게 날아가지? 저렇게 높은데 센서가 연결이 되나?'
싶었지만 너무 잘 올라가니 내 동생이 성공한 것처럼 부듯하고 좋았다. 그 다음은 모션센서 체험이었다. 들어가니 익숙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빨강, 파랑, 초록, 분홍색.. 그것은 바로 닌텐도였다. 그걸 이용해 춤을 추며 모션센서 체험을 했다. 춤을 추며 모션센서 체험을 하니 즐거웠다. 1등을 해서 더욱 좋았다. 마지막은 코딩이었다. 친한 친구와 짝이 되어 체험했다. 코딩 로봇의 이름은 초코였다. 초코는 우리가 방향이 적힌 기기를 차례대로 꺾으니 참 똑똑하게도 그걸 따라 잘도 움직이는 로봇이었다.

그날엔 많은 것을 배우고 체험하여 나와 과학을 더 가까이 만들었다. 너무 즐거웠다. 또 이런 축제가 있다면 그때도 신비로울까?



꿈밭의 생존수영 배우기

23번 최해솔

어느 날 생존수영을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화들짝 놀랐다. 솔직히 말하면 생존수영이 수업을 빼먹어서 좋지, 생존수영이란 활동 자체는 별로 반갑지 않았다. 그 다음 날부터 생존수영이란 단어를 잊은 채 하루하루가 지나가니 벌써 생존수영 전날이 되었다. 그날 저녁 바비바비 생존수영에 필요한 갖가지 준비물을 챙겼다.

그리고 다음날,

"삐리리리리, 삐리리리리."

"응, 이따 돌다리에서 보자."

윤하와의 약속을 잡은 뒤 수영복을 입고 가디건을 걸쳤다.

'주위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그게 뭐 상관이냐는 듯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후 윤하가 걸어왔다.

"윤하야, 안녕?"

"해솔아, 안녕?"

우리는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학교로 향했다. 교실 문을 드르륵 열자 수영복을 입은 채 친구들은 설레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애들아, 이제 차 타러 가자!"

"우와, 기대된다."

"어떨까?"

"다른 반 애가 그러는데 쌤 무섭대."

복도와 계단에 우리 반 애들 목소리가 시끌시끌했다. 우리는 내려와 차를 탔다. 우리는 가는 길에 셀카를 찍으며 즐겁게 갔다. 우리는 생

존수영센터 주차장에 들어갔다.

"이제 내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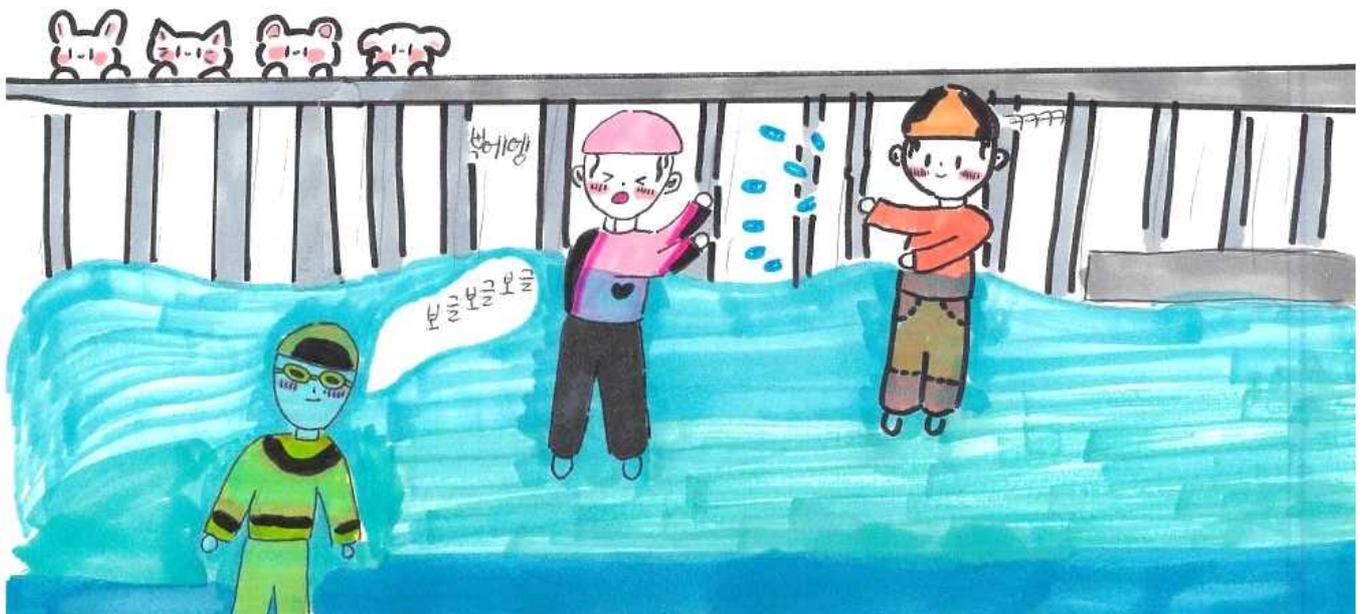
우리는 차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에 생존수영센터에 들어갔다. 남녀 나눠 탈의실에 들어간 다음 물안경을 목에 걸고, 자신의 개인 물품을 수납장에다 넣은 뒤 생존수영의 만반의 준비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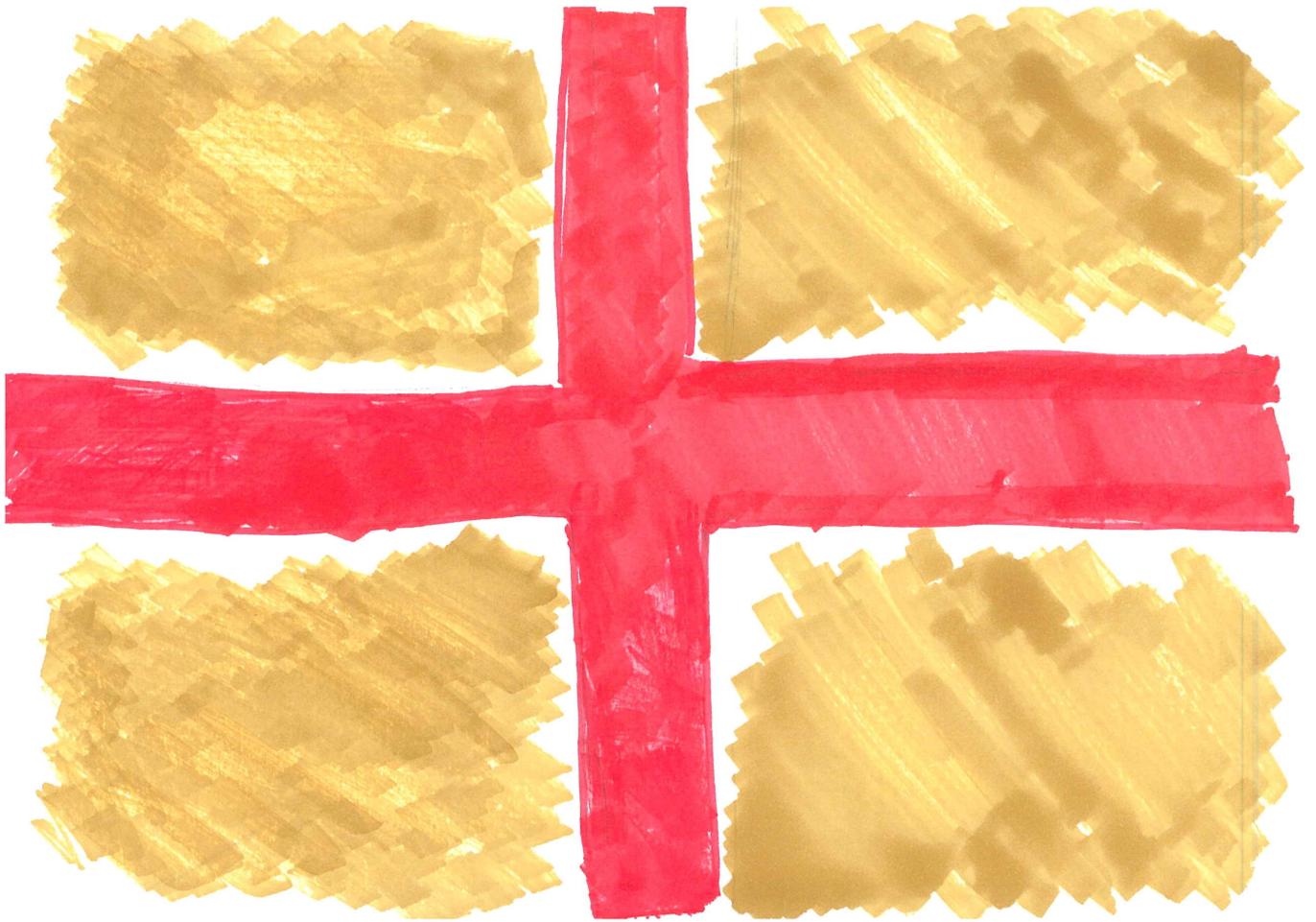
우리는 남녀 한 줄로 서서 천천히 수영실로 입장했다. 처음 말아보는 낯선 향, 낯선 느낌이 어색하지만 그대로 자리에 착석했다. 그리고 수영선생님께서 오셨는데 생각보다 안 무서워서 즐겁게 수업할 수 있었다. 우리는 구명조끼 착용법, 입수법, 체온유지법, 심폐소생술, 단체생존 등등 다양하고 유익하게 생존수영을 배웠다.

"이제 쉬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쉬는 시간 동안 물장구를 치며 놀았다. 약 10분이 지났을까, 우리는 선생님을 따라 천천히 퇴장했다. 긴장됐던 마음은 아쉬운 마음으로 남았다.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는데 괜스레 아쉬운 마음에 창가를 봤다. 당연히 다음에 또 하고 싶고, 지금 생각하면 많이 아쉽다. 다음에도 또 그리 특별한 일이 있기를..





우리가 함께한 소중한 날들을 기록하여 모은 글
모음집이 선물이었네요. 소중한 선물을 선물 상자 속
에 고이 넣어 두었다가 생각날 때마다 꺼내 보듯이,
2022학년도 5학년 7반 친구들과의 추억이 그리
울 때면 언제든지 다시 꺼내어 펼쳐볼 수 있게
잘 간직해주세요.

정든 5학년 7반 교실을 뒤로 하고 새출발을 준비하는 꿈밭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서운하고 아쉬운 감정은 이 자리에 묻어 두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랑과 감사, 희망과 용기, 존중과 배려의 기억을 가슴 가득히 안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응원합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라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꿈밭지기 윤보라.

2023.01.06.

